

## 그땐 그랬지

인일여고 15기 김미숙

연합고사를 치루고 영광스럽게도 명문 인일여고에 입학. 햇병아리 같았던 1학년 나는 교복 상의(검정스웨터)에 탈부착용 하얀색 카라를 정성껏 다림질한 후, 깔끔하게 붙이고 승의동에서 30분 남짓 걸리는 학교를 도보로 참 열심히 다녔다. 약간의 언덕에 위치한 학교로 가는 길도 전혀 힘든 줄 모르고 다녔던 것 같다. 환갑이 되었어도 아직도 걷기는 즐겁고 신난다.

하늘같은 선배님들의 위상에 스스로 기가 죽어(?) 반면에 인일여고 학생이라는 자부심에 3년간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교복을 신성하게 소중히 다루기도 해서 졸업해서도 한동안 간직했었다.

특이했던 것은 ‘시험무감독고사’ 도입으로 시험 감독교사 없이 시험을 치루었던 기억은 아직도 ‘학생무한신뢰’방침으로 시행한 학교측의 대단한 시도로 여겨진다.

지금은 사라진 교정의 분수대에서의 추억은 애뜻하다. 단발머리 소녀들의 꿈꾸던 장소였고,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한없이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꽃보다 아름다웠던 소녀들은 충동문 장기자랑에서도 라인댄스로 실력을 뽐낼 수 있었다.

매월 15일 ‘민방위훈련’ 날이면 준비물로 챙겨간 김장비닐봉투에 나의 몸을 넣고 바람반대 방향으로 엎드려서 진지하게 훈련에 참여한 기억도 생생하다. 모든 교내 행사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던 학창시절이 그림다. 훈련이었지만 솔직히 교우들과 한 장소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오히려 훈련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했었던 것 같다. 교실 공부보다는 바람이 있는 밖에서의 시간을 즐겼지.

그리고 입이 즐거웠던 추억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는 매우 출출하여 어떤 먹거리도 마다안할 텐데 교정을 나서는 즈음부터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 바로 ‘오도독’과자!! 들어는 보았는가~ 식감이 기가 막히고, 없어서 못 먹는, 잊을 수 없는 그 맛. 3년간 체중 늘이는데 엄청난 일조를 했다. 그 뿐인가. 매콤달콤한 쫄면에 단발머리들의 수다는 늘어만 가고 중독성 있는 쫄면을 지금도 즐기는 먹거리다.

동인천사거리에 위치한 ‘교보문고’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참고서구입도 있었지만 문학소설을 좋아한 나는 하교하면서 매일을 서점에 들렀었다. 이 또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기억으론 학교규정에 단발머리는 귀밑 3cm 었던 것 같다. 교육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딸 셋의 머리카락을 우물이 있던 넓은 마당에서 보자기를 두르고 잘라주셨다. 그땐 이가 빠진 가위에 머리카락이 물려 뜯기곤 했는데 짜증나고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에 이발비용이라도 아끼려는 방법이셨던 것 같은데 언니들이랑 머리 뒷쪽에 보자기를 잡아주었던 추억도 아련하다.

또 한 가지 인일여고만의 ‘오수시간’이 있었다. 점심시간 이후 약 30분간 수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정된 시간으로 식곤증해결로 학습효과를 증대하려는 학교당국의 야심작이었던 것 같은데 오수시간은 억지로 자느니 차라리 학생 자율에 맡겼으면 어땠을까 바람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셨겠구나~ 뒤늦은 감사함을 전합니다.

교실과 복도는 나무 바닥재로 학생개개인이 마른걸레와 왁스로 바닥 윤내기를 했었다. 한바탕 윤내기 작업이 끝나갈 무렵이면 한동안 왁스냄새가 진동하여 어지럼 증세도 있었지만 반질반질해진 바닥에서 미끄럼도 지치고 청결해진 환경이 좋았다.

어렴풋이 기억에 ‘생활관’예절교육도 있었는데 갖가지 한복을 입은 단발머리 우리들 모습이 너무 풋풋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납니다.

지나간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순수했고 꿈 많던 십대의 우정이 동문모임에서 새삼 반갑고 함께 나이 들어감이 좋습니다. 비교함 없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래 보고 싶은 바램뿐입니다. 친구들아! 사랑해~